

## 초점기획

## (3)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술개발지원사업 현황

## 목 차

- I . 서론
- II .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지역별 분포
- III . 통상산업부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지역별 참여 현황
- IV . 기타 중앙부처의 연구개발 및 기술 개발사업의 지역분포
- V . 결론

## 박종오

기업기술연구원, 부원장

(Tel : 02-785-1439)

## 장동훈

기업기술연구원, 실장

(Tel : 02-785-1439)

## I . 서론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관련 기술개발지원사업의 유형은 정부차원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각 지방 자치단체를 참여시키거나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는 방법이 있고, 최근에 실시되고 있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자발적인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별도의 연구개발사업예산을 확보할 때 정부의 예산지원방식이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중앙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은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이 1982년에 처음 실시된 이후에 통상산업부 및 정보통신부 등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80년대 중반부터 실시되었고, 그 외 국방부, 건설교통부, 농림수산부와 중소기업청 등도 각 부처별 자체 필요에 따라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들이 추진되는 현황은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연구소들이 주체가 되기 때문에 지역적으로도 연구기관이 많이 소재하고 있는 서울, 경기 등 수도권지역과 대전, 부산, 대구 등 대도시 중심으

로 추진될 수 밖에 없었다는 내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된 이후부터 지방산업의 활성화와 지방과학기술의 확충을 위한 수단의 하나로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방연계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당위론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아직 본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방 연계가 추진되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까지 지역별로 추진실적의 분포상황과 특징을 분석해 봄으로써 향후 바람직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방 연계방향을 모색해 볼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고에서는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사업등 연구개발사업과 통산산업부의 산업기반기술개발사업등을 지방자치단체 관련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기타 중앙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추진상황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시사점과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추진구조 분석에 있어서 현황은 물론 그 원인과 환경 변화요인등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자료적 제한과 함께 지방화에 입각한 사업추진은 근래에 제기된 개념인 까닭에 전반적으로 동일한 틀속에서 분석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방법의 시도가 최초로 이루어지는만큼 미진하고 단편적인 부문이 있더라도 과학기술의 지방화 추진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자차적 효율화 방안과 지역별 안배등에 있어서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 II. 과학기술처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지역별 분포

### 1.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역별 분포

대학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경우, 우수한 연구중심대학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지역에 총 연구비의 약 45%정도가 집중되고 있다(<표 1>참조).

이는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원칙

<표 1>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역별 참여 분포

(단위: 건수, 백만원, %)

지 역	1996년		1995년		1994년		ERC/SRC/RIC ('97년 현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도권	서울	899 (41.0)	33,414 (41.0)	629 (35.2)	25,782 (40.5)	568 (42.2)	20,197 (44.5)	서울대(10) 서강대(1) 전국대(1) 고려대(1)
	인천	32 (2.5)	1,254 (1.5)	52 (2.9)	902 (1.4)	35 (2.6)	587 (1.3)	인하대(1)
	경기	119 (5.8)	4,496 (5.5)	185 (10.4)	4,044 (6.4)	85 (6.3)	1,614 (3.6)	서울대(1) 한양대(1)
영동권	강원	83 (4.1)	1,904 (2.3)	83 (4.6)	1,631 (2.6)	65 (4.8)	854 (1.9)	강원대(1)

지 역		1996년		1995년		1994년		ERC/SRC/RRC ( '97년 현재)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충청권	대전	208 (10.2)	12,896 (15.8)	193 (10.8)	10,636 (16.7)	166 (12.3)	8,493 (18.7)	KAIST(8) 충남대(2)
	충남	47 (2.3)	1,275 (1.6)	51 (2.9)	714 (1.1)	10 (0.7)	209 (0.5)	호서대(1)
	충북	54 (2.6)	1,189 (1.5)	63 (3.5)	812 (1.3)	40 (3.0)	599 (1.3)	충북대(1)
영남권	부산	123 (6.0)	5,058 (6.2)	114 (6.4)	3,075 (4.8)	71 (5.3)	2,675 (5.9)	부산대(3) 부경대(1)
	경남	76 (3.7)	2,481 (3.0)	77 (4.3)	2,530 (4.0)	72 (5.4)	4,817 (10.6)	경상대(2)
	대구	137 (6.7)	4,300 (5.3)	74 (4.1)	2,871 (4.5)	81 (6.0)	1,060 (2.3)	경북대(2) 계명대(1)
	경북	77 (3.7)	7,029 (8.6)	130 (6.7)	5,695 (9.0)	50 (3.7)	2,207 (4.9)	포항공대(4) 영남대(1)
호남권	광주	74 (3.6)	2,681 (3.3)	56 (3.1)	2,120 (3.3)	45 (3.3)	624 (1.4)	전남대(1) 조선대(1)
	전남	14 (0.7)	371 (0.5)	12 (0.7)	268 (0.4)	7 (0.5)	82 (0.2)	목포대(1)
	전북	73 (3.6)	2,644 (3.2)	64 (3.6)	2,306 (3.6)	42 (3.1)	1,325 (2.9)	전북대(1) 원광대(1)
제주권	제주	9 (0.4)	426 (0.5)	14 (0.8)	214 (0.3)	8 (0.6)	64 (0.1)	제주대(1)
합 계		2,045	81,417	1,787	63,600	1,345	45,407	51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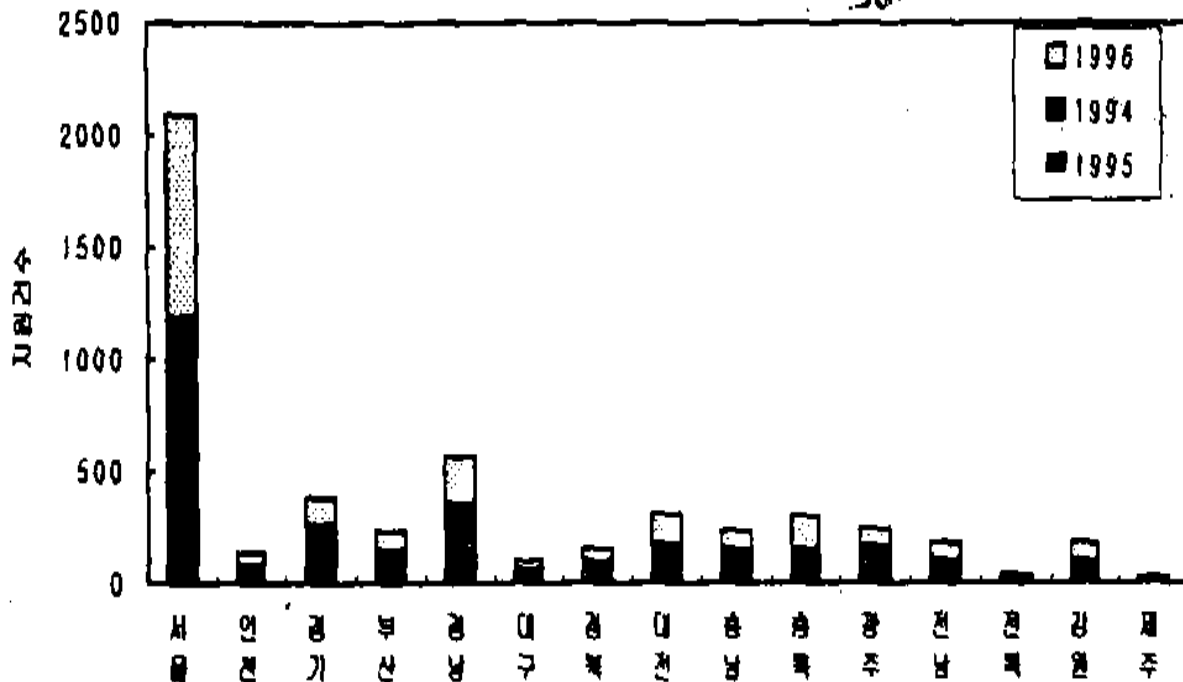
주: ( )안은 백분율임.  
자료: 과학재단, 기초연구지원통계연보

이 지역별 배분을 고려하여 추진하기 보다는 연구능력을 보유한 대학연구 주체를 지원하는 기준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다. 즉, 「연구개발자원이 있는 곳에 연구비를 지원한다」는 seedsoriented policy를 채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우수한 대학과 연구인력이 집중되어 있는 서울에 대한 기초연구비 지원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서울 다음으로 연구과제수와 연구비 배분비율이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96년 기준으로 건수 대비 10.2%, 연구비 대비 15.8%를 차지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이공계 대학의 전국대비 비율이 5%인 점을 고려한다면 본 사업의 지원율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역별 추진실적은 건수나 금액면 모두 서울지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점하고, 대전, 경기, 경남 등의 순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타 지역에 대한 지원실적은 상대적으로 낮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그것은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그림1> 기초지원연구사업의 지역별 추진 현황



우수연구센터와 지역협력연구센터 등을 중심으로 추진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수연구센터는 1990년부터 중부에서 대학내에 탁월성이 있는 연구그룹을 육성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구중심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동 사업의 지역별 비중이 영향을 받고 있다.

한편 지역협력연구센터(RRC)는 1995년부터 지역중심으로 과학기술 지방화의 관점에서 설립하여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는 대학연구 지원제도이다. 이들 우수연구센터(RRC 포함)의 지역별 분포는 서울 13개, 대전 10개, 경북 5개, 부산 4개, 대구 3개, 기타지역 14개로 분포되고 있다.

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지역적 분포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능력의 배양과 핵심산업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처가 1982년부터 착수한 국가차원의 최초 연구개발사업으로서 기술개발촉진법 제 8조의 3에 근거를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1982년 출범 당시 133억원을 투입하여 국가주도 및 민간주도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 것을 시작으로 1996년에는 19배가 늘어난 2,543억원을 투입하였으며, 선도기술개발사업·국책연구개발사업·거대과학기술개발사업 등 8개 유형의 하부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90년대 이후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을 모체로 하여 산업관련 부처들이 각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되면서부터 특정연구개발사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연구개발사업으로 정착되어 왔다.

한편 과학기술처의 특정연구개발과제의 1996년도 추진실적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건수 기준으로 서울특별시(39.7%)와 대전광역시(34.5%)가 절대 비중을 차지하여 이들 두 지역이 74.2%를 점하고 있다. 금액기준으로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집중되어 있는 대전광역시(54.5%)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서울특별시가 23.4%수준이다.

또한 민간연구주체의 특정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상황은 서울, 경기, 경남, 대전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대전지역은 민간연구기관이 대덕연구단지에 입지해 있고, 나머지 지역은 산업개발

<표2>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1996)

(단위: 건수, 백만원, (%))

지 역		출연(연) 국공립(연)		대 학		민간/기타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수도권	서울	191	29,655	200	11,642	161	18,490	552(39.7)	59,787(23.4)
	인천	-	-	8	661	25	3,623	33(2.4)	4,284(1.7)
	경기	55	11,956	6	764	88	12,860	149(10.7)	25,580(10.0)
영동권	강원	-	-	9	406	-	-	9(0.6)	406(0.2)
충청권	대전	462	134,918	4	226	14	3,915	480(34.5)	139,059(54)
	충남	7	-1,740	5	568	2	612	14(1.0)	2,920(1.1)
	충북	-	-	6	169	1	890	7(0.5)	1,059(0.4)
영남권	부산	1	44	9	884	7	1,335	17(1.2)	2,263(0.9)
	경남	24	5,755	9	559	30	4,520	63(4.5)	10,834(4.2)
	대구	-	-	10	649	2	537	12(0.9)	1,186(0.5)
	경북	-	-	20	2,135	9	2,777	29(2.1)	4,912(1.9)
호남권	광주	5	270	3	128	4	1,531	12(0.9)	1,929(0.8)
	전남	-	-	1	88	-	-	1(0.1)	88(0.1)
	전북	-	-	12	609	-	-	12(0.9)	609(0.2)
제주권	제주	-	-	1	95	-	-	1(0.1)	95(0.1)
합 계		745	184,338	303	19,583	343	51,090	1,391(100)	255,011(100)

주: 세부과제의 주관연구기관의 주소지에 따라 분류함. ( ) 안은 백분율임

자료: 과학기술정책관리연구소의 특정연구개발과제 DB자료중 1996년 실적치를 집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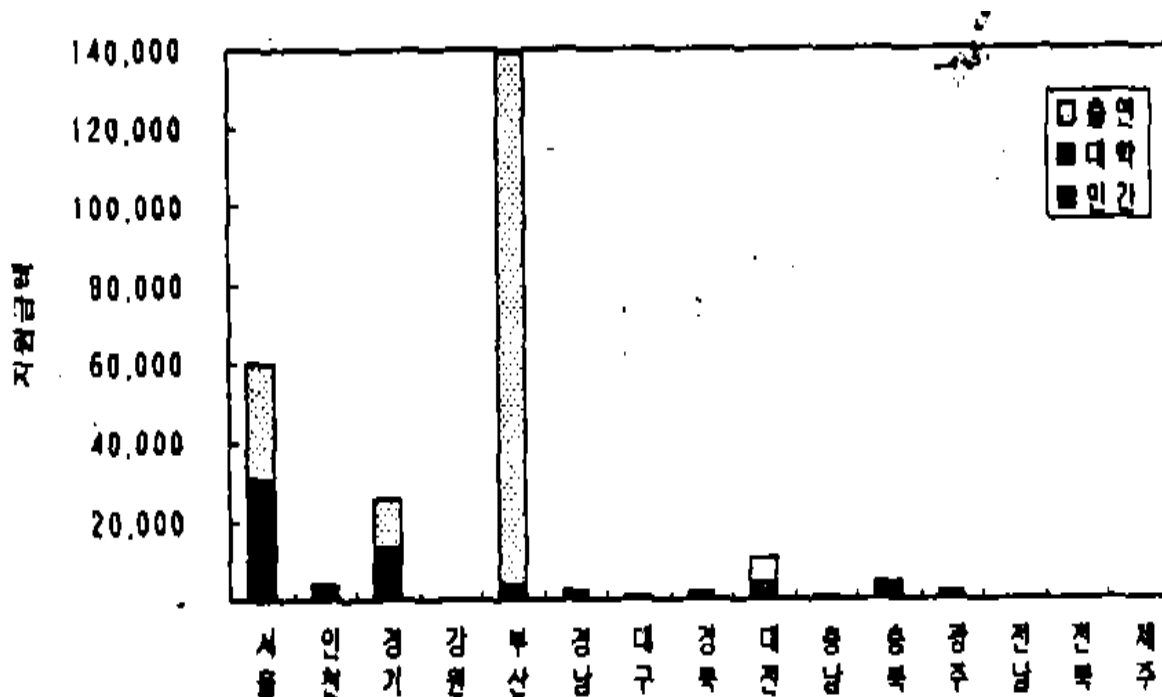
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앞서 있는 관계 등으로 민간연구기관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정연구개발사업에의 대학의 참여상황을 살펴보면, 과제수를 기준으로 서울이 66.0%, 경북이 6.6%, 전북 4.0%, 대구 3.3%, 부산, 경남, 강원이 각 3.0%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연구비 기준으로는 서울이 59.4%, 경북이 10.9% 부산이 4.5%등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기반기술개발 및 산업기술개발의 기초분야를 중심으로 한다는 동 사업의 취지를 감안할 때 지역개발을 위한 지방대학의 활용도를 높일 필요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특히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이 서울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지방에 대한 지원비율을 높여야 할 필요도 크다는 점도 있다. 따라서 앞으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특화산업과 연계된 연구개발과제를 발굴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현재 각 시·도별 전문기관의 참여하에 진행 중인 지역특화기술개발조사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타 지역에 비해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거나 지역산업구조상 광범위한 수요가 요구되는 지역별 특화기술을 선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공동개발을 추진해 나가야 함을 의미한다. 여기에 해당지역의 기업, 연구주체, 산·학·연 전문가들이 투

<그림> 특정연구개발사업비의 지역별 분포 현황(199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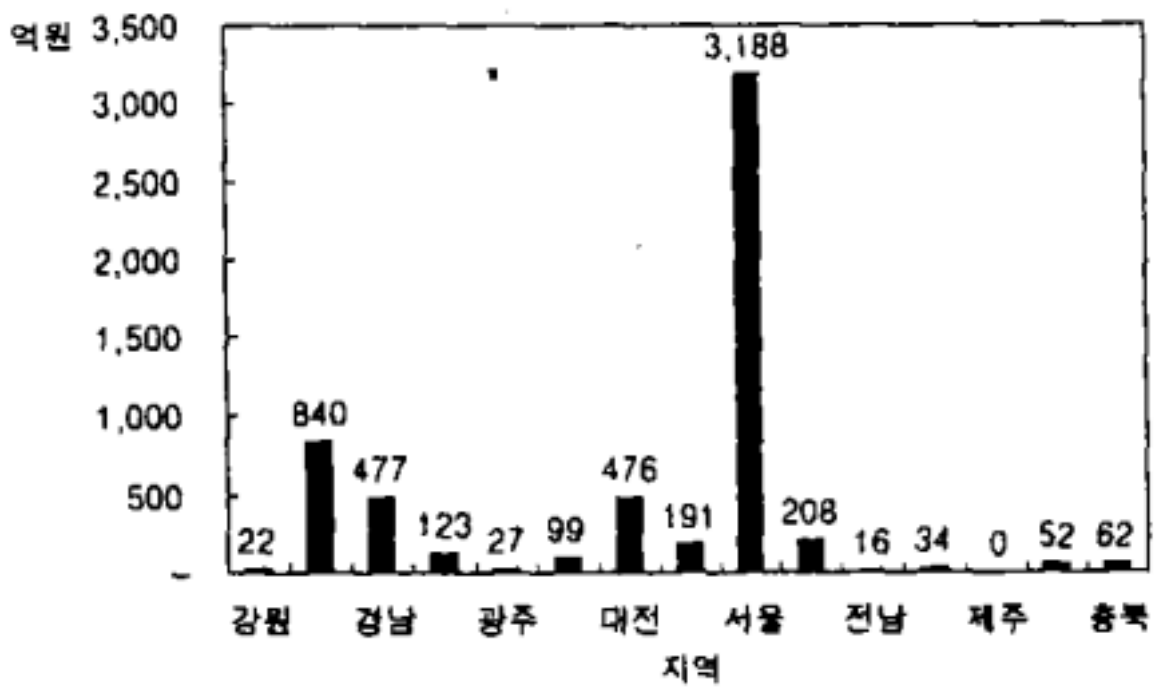
입되도록 함으로써 지역기술발전의 토대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동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특화된 분야의 연구집단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정부 출연기관은 지역기술개발지원업무를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III. 통상산업부의 연구개발사업에의 지역별 참여 현황

통상산업부는 핵심산업기술의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기술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산업경쟁력을 근본적으로 제고하기 위하여 공업발전법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87년부터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사업은 산업기술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된 산업현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핵심기술 분야와 민간의 자주적인 노력만으로는 기술향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술분야 등의 기술수준 제고를 위하여 민간의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부에서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렇듯 산업기술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경우도 특정연구개발사업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연구개발 자금이 수도권에 편중되고 있다(<그림3>참조).

<그림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참여 현황



<표3>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억원, 건)

구분	'87-'89	'90	'91	'92	'93	'94	'95	'96	계	지원비율 (%)
서울	254 (233)	202 (109)	262 (166)	280 (74)	285 (101)	461 (62)	641 (102)	803 (131)	3,188 (974)	54.8 (45.3)
부산	9 (12)	8 (6)	13 (12)	12 (7)	16 (14)	32 (7)	33 (6)	68 (27)	191 (91)	3.3 (4.2)
대구	12 (12)	6 (5)	9 (8)	10 (8)	15 (9)	15 (6)	15 (10)	17 (8)	99 (66)	1.7 (3.1)
인천	33 (21)	17 (12)	23 (11)	25 (11)	32 (14)	24 (8)	28 (11)	26 (9)	208 (97)	3.6 (4.5)
광주	3 (3)	1 -	2 (2)	2 (1)	8 (5)	2 -	5 (2)	4 (1)	27 (14)	0.5 (0.6)
대전	38 (37)	47 (14)	87 (30)	68 (16)	55 (21)	92 (8)	33 (10)	56 (38)	476 (174)	8.2 (8.1)
경기	74 (52)	14 (25)	56 (44)	69 (27)	108 (48)	113 (50)	164 (42)	215 (80)	840 (378)	14.4 (17.6)
강원	- -	- -	1 (1)	2 (1)	4 (5)	3 (1)	5 (3)	7 (4)	22 (15)	0.4 (0.7)
충북	7 (6)	- -	9 (9)	4 (2)	7 (4)	6 (2)	10 (4)	19 (6)	62 (29)	1.0 (1.3)
충남	2 (2)	2 (2)	12 (6)	3 (1)	3 (2)	6 (5)	8 (6)	16 (6)	52 (30)	0.9 (1.4)
전북	3 (3)	2 (1)	6 (4)	4 (1)	1 (2)	1 -	5 (5)	12 (4)	34 (20)	0.6 (0.9)
전남	- -	1 (1)	1 -	- -	2 (3)	3 (2)	3 -	6 (6)	16 (21)	0.3 (0.6)
경북	9 (8)	6 (1)	30 (10)	20 (10)	11 (3)	16 (8)	15 (7)	16 (11)	123 (58)	2.1 (2.7)
경남	31 (28)	62 (17)	83 (35)	65 (19)	52 (24)	55 (14)	66 (21)	63 (36)	477 (194)	8.2 (9.0)
계	475 (427)	396 (190)	594 (333)	564 (178)	599 (253)	829 (173)	1,031 (229)	1,328 (367)	5,815 (2,512)	100 (100)

즉 서울지역이 금액과 건수면 모두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실적을 보인바, 건수로는 45.3%이고 금액으로는 54.8%의 비중을 차지한다. 더욱이 경기지역이 그 다음의 비중(15~18%)을 점함으로써 수도권 중심의 사업추진이라는 특성을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산업기술력이 지역적으로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연도별로 지역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의 참여 현황을 볼 때, 매년 수도권의 집중도가 매우 높으며 대전 부산 경북 경남 지역 등에서 '90년대 이후부터 참여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주목할만 하다.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공업발전기금사업의 참여주체별 지역분포에 있어서도 기업 및 연구조합 대학, 연구기관 기타 등 모든 주체별로

<표4>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공업발전기금사업의 참여주체별 지역별 분포



지 역		주관연구기관별 지원 건수						
		기업	연구조합	대학	출연연	국공연	민간연	기타
수도권	서울	215(251)	215(22)	206	129	22(1)	21(1)	3(82)
	인천	38(42)	2(1)	9	34	-	-	1(9)
	경기	194(165)	3(2)	25	25	22	6	2(33)
영동권	강원	4(8)	-	5	-	-	-	(5)
충청권	대전	20(10)	-	30	88	-	-	(1)
	충남	15(12)	-	5	-	-	-	(1)
	충북	13(10)	-	8	-	-	-	(5)
영남권	부산	17(25)	-	26	1	3(1)	14	2(5)
	경남	31(19)	-	13	99	-	-	(7)
	대구	29(21)	-	15	1	-	5	2(5)
	경북	41(35)	(1)	8	-	-	-	1(2)
호남권	광주	5(4)	-	6	-	-	-	(2)
	전남	5(1)	-	1	-	-	-	-
	전북	6(3)	-	4	-	1	-	-
제주권	제주	-	-	-	-	-	-	-
총 합		633(607)	220(26)	361	377	48(2)	46(1)	11(157)

주: 1. 건수는 1987년 사업추진 이후 부터 1995년 9월 현재까지 누적실적치임.

2. 수치는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건수임.

3. ( )안의 수치는 공발기금사업 건수를 나타냄

보더라도 서울이 압도적으로 많은 참여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그다음이 경기지역이며, 대전과 경남 경북지역 등 연구기관과 기업의 참여가 조금 높게 보인다(<표 4>참조).

한편 95년부터 시행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은 정부 예산 202억원과 민간의 대응자금(對應資金) 791억원 등 총 993억원을 투입하여 기술인력 공급기반 구축, 산업정보화, 산·학·연 공동연구기반 구축, 산업표준화, 국제기술협력 등 5개분야에서 총 1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 지역별 지원 분포는 <표5>에 나타나는 것과 같이 '95~'96년 기간동안 서울지역이 26건, 225억원으로 가장 많고, 그 외 대구 60억원, 대전 33억원, 총 34억원 등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동 사업은 최근에 시작된 사업일 뿐만 아니라 취약한 산업기술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비해 서울지역에의 편중현상(57.35%)이 심화되고 있어 사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동 사업의 목적이 공동애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다에 두고 있으므로 지역중소기업의 참여를 적극 확대해야 할 당위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동 사업의 추진시 지역별 균형을 감안하여야 할 것인바, 각 지역 소재, 기업, 대학, 등을 대상으로 한 사업 관련 정보의 신속한 유통

<표 5>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지역별 분포

(단위: 건수/백만원)

구분	'95		'96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서울	9	4,254	17	18,250	26	22,504
부산	-	-	2	1,700	2	1,700
대구	1	2,500	3	3,500	4	6,000
인천	-	-	-	-	-	-
광주	-	-	1	1,000	1	1,000
대전	1	2,000	2	1,300	3	3,300
경기도	-	-	4	1,400	4	1,400
충청도	-	-	-	-	-	-
충남	1	700	2	2,700	3	3,400
전남	-	-	-	-	-	-
경남	-	-	-	-	-	-
제주	-	-	-	-	-	-
계	12	9,454	31	29,850	43	39,304

주: '96년도 자료는 신규 및 계속사업 지원실적임.

혁신과 사업참여 확대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상산업부의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에 의한 지방과학기술 육성과 관련된 세부시책으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첫째, 제반 경영여건이 매우 취약한 지방소재 기업의 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각종 산업·기술정보의 획득과 활용을 원활하게 하여, 지역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을 촉진하고, 아울러 지방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정보화모델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여 지역 자체내의 기술개발 능력의 향상이 필요하나 지방 중소 기업의 기술개발 노력과 지방소재 기술지원기관의 지원능력이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당해 지역의 주변 산업여건상 비교우위를 갖는 분야에서 당해 지역내 산·학·연 연구인력 및 장비를 결집시켜 지역특화기술의 개발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산학협동연구단지는 대학 및 산업체가 연구단지 건설비 및 운영비를 부담하고 중앙정부가 연구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수행된다.

셋째, 매출잠재력이 큰 고부가가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나 사업화에 애로를 겪고 있는 개인에게 신제품 개발자금,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인력 및 설비를 지원하여 고부가가치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보육(Technology Business Incubator)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표 6> 산학협동연구단지 기반구축사업 및 TBI 사업수행기관 현황('96년)

산학협동연구단지 사업수행기관	연구단지	지원대상	통상산업부 지원금액	비고
고려대	고려 테크노 컴플렉스	중소기업 협동연구	'95: 5억 '96: 5억	
연세대	연세공학연구 센터	중소기업 협동연구	'95: 5억 '96: 5억	
경북대	경북대 공학 설계기술원	공학설계기술	'96: 10억	제1회 지방산업 기술진흥협의의 안전
부산대	부산경남자동차 테크노센터	자동차복화 기술	'96: 10억	제2회 지방산업 기술진흥협의의 안전
조선대, 전남대	(가칭)광주 테크노센터	설계·전자부품 특화기술	'96: 10억	제3회 지방산업 기술진흥협의의 안전

TBI 사업수행기관	영남대학교 (영남권)	부산대학교 (부산권)	조선대학교 (호남권)	생산기술연구원 (수도권)
입주시설 가공설비	전용건물신축 (800평) 5억상당 32점	기존건물 활용 및 신축(1,175평) 7억상당 103점	기존건물로활용 (1,592평) 6억상당 19점	기존건물 활용 및 신축(750평) 45억상당 114점
연구장비	36억상당 283점	52억상당 1,735점	48억 상당 384점	337억상당 8,040점
전문특화 분야	기계 및 섬유	기계, 자동차, 신발	기계 및 재료	생산기반기술, 메카트로닉스

넷째, 지방중소기업의 애로기술을 지역 대학의 우수한 인력과 자원을 활용하여 현지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궁극적으로 지방공과 대학이 당해 지방소재 중소기업의 공동연구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사업」을 실시한다.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컨소시엄 지원사업은 지방에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지역컨소시엄을

<표 7>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지역컨소시엄 사업내용

구 분	'93년	'94년	'95년	'96년
컨소시엄수	19	40	45	50
참여업체(개)	316	768	850	900
- 개발과제	264	568	620	800
사업비(억원)	50	108	140	200
- 국 비	20	40	50	70
- 지방비	13	30	40	60
- 민 자	17	38	50	70

구성하여 생산현장의 애로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대학과 업체가 합의하에 개발대상과제를 도출·연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통산부의 지방산업기술 지원정책의 준비는 향후에 지방과학기술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타 중앙부처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협력적 연계강화로 정책의 효율성을 추구하여 중복기피 및 편향성을 줄여 지방과학기술에 기여토록 해야 할 것이다.

IV. 기타 중앙정부처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사업의 지역분포

과학기술처와 통상산업부를 제외한 중앙부처의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사업으로는 교육부의 학술연구조성사업, 국방부의 국방관련 연구개발사업, 농림부의 농림수산기술개발, 첨단농업기술개발사업,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환경부의 환경공학기술개발사업과 환경정책 및 기반기술개발사업, 보건복지부의 신약기술개발지원사업, 해양수산부의 수산개발특정연구,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대형연구사업, 그리고 정보통신부의 전파연구 및 통신기반기술개발사업,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의 특정연구개발사업,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현장애로기술개발, 출도청의 철도 기술연구개발사업 등도 추진되고 있다. 이들 중앙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96년 2조 3795억원에서 '97년 2조 9,458억원으로 23.9%가 증가되었다.

그 중 농림수산 기술개발사업의 수행과제별 지역적 분포는 <표 8>와 같다. 농림수산 현장애

<표 8> 농림수산 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건, %)

지 역		농림수산 현장애로기술			농림수산 첨단기술('96년)	합 계
		'94년	'95년	'96년		
수도권	서울	6	6	46	63	121(16.6)
	인천	0	0	1	1	2(0.3)
	경기	34	1	57	93	215(29.1)
영동권	강원	6	1	16	16	39(5.3)
충청권	대전	4	0	20	33	57(7.7)
	충남	1	1	4	4	10(1.4)
	충북	0	0	6	8	14(1.9)
영남권	부산	0	5	38	23	66(8.9)
	경남	5	1	21	13	40(5.4)
	대구	4	1	22	19	46(6.2)
	경북	4	0	12	13	29(3.9)
호남권	광주	2	1	16	15	34(4.6)
	전남	5	1	12	4	22(3.0)
	전북	3	0	21	9	33(4.5)
제주권	제주	1	0	5	6	12(1.6)
합 계		75	18	327	320	740(100)

로기술사업의 경우 '94년 75건에서 '95년 18건으로 줄었으나 '96년에는 327건으로 증가하여 지방자치체도의 실시와 함께 본격화되고 있다.

'96년 중 농림수산 현장애로기술의 추진실적은 경기(87건: 26.6%)가 가장 많고, 서울 46건(14.1%), 부산 38건(11.6%)등 3개 지역이 절반이상을 점하고 있고, 대전, 경남, 대구, 전북등이 20건대이고, 그 외 지역은 10건대 및 2건이하의 과제를 수행한 실적을 보였다.

그리고 농림수산첨단기술개발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게 경기 93건(29.1%), 서울 63건(19.6%), 대전 33건(10.3%), 부산 23건(7.2%) 등 4개 지역이 절대다수를 점하여 그 외 지역들 보다 높은 수행비중을 보였다.

농림수산 현장애로기술(94~96년)과 첨단기술개발사업(96년)의 종합적 수행비중에 있어서도 경기가 29.1%로 가장 많은 비중이며, 서울이 16.6%로 그 다음이다. 그 외 지역은 부산 8.9%, 대전 7.7%이고 타지역은 대부분 10%미만의 비중으로 수행되었으며, 인천과 제주의 경우는 극히 미약하다.

따라서 농림수산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도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역과 부산·대구 등 대도시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어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동 사업의 분포는 농림수산기술에 대한 수요가 도단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나타나 대조적이다.

한편, 건설교통부의 기술개발사업은 <표 9>와 같이 '94년중 18건에서 '95년 38건으로 증가되었고, '96년에는 58건으로 확대되어 3년간 총 114건이 수행되었다. 이들 과제의 지역적 분포에 있어서도 서울지역이 '94년 10건, 95년 26건, '96년 38건 등 총 74건으로 전체의

<표 9> 건설교통 기술개발사업의 지역별 분포

(단위: 건, %)

지 역		'94년	'95년	'96년	합계
수도권	서울	10	26	38	74(64.9)
	인천	0	1	3	4(3.5)
	경기	5	3	5	13(11.4)
영동권	강원	0	0	2	2(1.8)
충청권	대전	2	5	4	11(9.6)
	충남	0	0	0	0(0)
	충북	0	0	2	2(1.8)
영남권	부산	1	2	0	3(2.6)
	경남	0	0	0	0(0)
	대구	0	0	1	1(0.9)
	경북	0	0	1	1(0.9)
호남권	광주	0	0	1	1(0.9)
	전남	0	0	0	0(0)
	전북	0	1	1	2(1.8)
제주권	제주	0	0	0	0(0)
합 계		18	38	58	114(100)

64.1%로 절대다수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것은 건설기술개발사업의 수행을 주로 담당하는 한국건설기술연구소가 서울에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타 지역의 경우 경기지역이 총 13건으로 11.4%를 점하고 인천 3.5% 등 수도권지역이 무려 80% 정도나 차지하고 있다. 대전 11건(9.6%)을 제외하고 타지역은 1~2건에 불과하여 동 분야의 기술개발과제 수행도 수도권과 대전 중심으로 추진됨을 알 수 있다.

이렇듯 과거처와 통상부를 비롯한 국가연구개발 및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은 물론 기타 중앙부처의 기술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서도 수도권과 대도시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국공립 및 정부출연기관이 수도권 지역과 대전지역에 주로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기타 지역의 경우는 대학과 연구기관은 물론 기업연구소등 R&D 수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상대적으로 열위하기 때문으로 풀이할 수 있다.

## V. 결론

이상의 분석을 종합해 볼 때,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약 80%가 서울, 대전, 경기, 경남 등 4개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

고, 이중 서울이 47.31%로 절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10> 참조).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관련 기술개발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수도권 지

<표 10> 주요지역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실적

(단위: 건수, %)

	서울	대전	경기	경남	기타지역
특정연구 개발사업('96)	552	460	149	63	147
%	39.68	34.51	10.71	4.53	10.57
공업기반 기술개발사업('96)	803	36	215	63	191
%	60.47	4.22	16.19	4.74	14.38
기초과학연구 지원사업('96)	899	208	119	76	743
%	43.96	10.17	5.82	3.72	36.33
합계	2,254	744	483	202	1,081
% (A)	47.31	15.62	10.14	4.24	22.69
인구구성비(%) (B)	22.7	2.8	17.6	8.5	48.4
A/B	2.08	5.58	0.58	0.50	0.47
GRP구성비(%) (C)	25.1	2.3	16.3	11.9	44.4
A/C	1.88	6.79	0.62	0.36	0.51

주: 인구구성비는 1996년 기준이고, GRP구성비는 1994년 기준임.

역과 대전 등 대도시 편중 지역의 과학기술력을 확충하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분포 현황이 시사하고 있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원칙이 연구개발능력 중심으로 연구비를 배분하는 효율성(efficiency), 논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인 분배논리에 따른 지역거점 육성 차원에서 연구개발추진은 상대적으로 미약함을 나타내고 있다.

둘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한 연구자원의 지방자치단체별 분포를 살펴볼 때 서울, 대전, 경기, 경남 지역들에 상대적으로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인구구성비나 GRP 구성비와 대비할 경우, 서울과 대전만이 10이상 나타내고 있고, 여타지역은 0.7 이하도 나타나고 있어 통계적으로 우리나라 과학기술투자과 경제활동지표의 상관관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제기되고 있는 전국토의 균형성장 노력이 쉽지 않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산업이나 과학기술의 경우 자연발생적으로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기보다는 과학기술기반이 있는 지역으로 집중되는 구심력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과학기술지원을 지역적으로 분배하지 않을 경우, 인력, 자원, 기술 등 모든 경제활동자원이 중앙으로 집중되게 되고, 지방의 경우 과학기술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로 중앙정부가 과학기술의 지역분산을 추구하면서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별로 특화기술개발 거점을 육성하여 집중 투자하는 정책적 노력이 요청된다.

특히, 최근 들어 수도권외의 팽창으로 인해 산업의 지역분산이 전개되면서 첨단산업기업들이 지방에 입지하고 있으나 이들 첨단기업들의 경우 지역에 위치한 교육 및 연구기관과 하부구조의 취약 등으로 우수인력을 확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첨단기업들은 공장은 지방에 두되 연구소는 수도권에 소재하도록 하는 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에 입지한 첨단산업기업에서 요구되는 고급인력 및 기술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우수인력의 양성과 유치 그리고 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우수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의 육성과 함께 연구개발 하부 기반의 확대가 요구된다.

이는 국가적 관점에서 고려할 때 서울, 대전과 같이 이미 연구개발기반 및 잠재력을 갖추고있는 지역에서는 이들 연구개발능력을 활용하는 정책을, 그리고 기타 지역에서는 지역특성에 적합한 연구개발 기반 육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추진시 지방의 연구개발자원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적 투자지원의 별도 마련과 함께 지방과학기술진흥을 위한 특별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시 지역자치단체의 참여 비율이 높아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지역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지역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특별사업구상과 아울러 과학기술단지 조성 등 지방자치단체 자체 사업의 확대를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